

광주·전남 협력 행정 1년 “상생이 보이네”

상생협의회 하반기 회의
서울 갤러리 공동운영기로
전남 소유지에 영농실습장
광주공항 이전 등 이전에도
협력과제 시너지 효과 특출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에 갤러리를 만들어 공동 운영한다. 또 광주에 있는 전남도 소유 토지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광주시민의 영농실습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광주·전남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제, 학계, 언론계 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광주·전남상생협의회는 지난 23일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 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1일 구성된 상생협의회는 이후 1년여만에 각종 협력과제에서 결실을 내며 협의기구로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 민간공항 이전 논의,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선임 등에 있어서 상호 이견을 보이거나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15년 하반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23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회의 후 윤정현 광주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이낙연 전남지사(앞줄 왼쪽 여섯번째), 자문위원, 시·도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일단 논의의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그리고 전남도는 ‘민간공항 우선 이전’을 주장하는 등 입장이 엇갈린 상태다.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 민간공항 경쟁력 쇠퇴,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계획 등도 맞물려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광주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보유한 광주·전남 소재 도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해 영농실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전남 도유지를 활용한 귀농·귀촌인 영농교육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전남 출신 미

술작가들이 서울에서 작품을 전시해 중앙무대 진출 기회를 갖도록 시·도가 공동으로 서울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광주·전남 서울 갤러리 공동 운영 과제’도 합의했다.

기존 과제인 ▲2015 하계U대회 성공회 협력 ▲제2남도학숙 건립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남도 방문의 해 추진 등의 사업도 완료됐거나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진이 완료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운영’과 ‘2015 하계 U대회 성공회 협력’을 제외하고, 신규 과제 2개를 추가해 상생협력과제 18개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이날 “상생협력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현안에 대해 대의가 뚜렷하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도가 각계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 중 대부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지난 1년의 경험은 헛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시·도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이며, 어떤 문제가 파하지 않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율성 기념사업’ 갈피 잡나

윤시장 중재로 ‘출생지’ 갈등 지자체 3곳 내일 회동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 정율성(1914~1976) 선생의 출생지를 놓고 갈라섰던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동안 관망만 해왔던 했던 광주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지자체부진했던 기념사업이 갈피를 잡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4시 광주 남구 양림동 최승호 가옥에서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 관련 자치단체장 정례간담회가 열린다.

윤정현 광주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노희용 동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구충근 전남 화순군수가 참석한다. 기념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힌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구와 남구는 정 선생의 출생지를 각각 불로동, 양림동이라고 주장하며 기념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다. 화순은 정 선생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갈등을 방치해 중재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생지 논란이 일자 광주시가 구성된 생가 고증위원회는 2010년 8월 “동구 불로동은 본적지이자 출생지, 남구 양림동은 출생지이자 성장지”라고 모호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정 선생의 딸 등은 광주시를 상대로 출생지 확인 소송을 냈다가 각하됐다. 기념사업 주체가 아닌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었다.

간담회에서는 출생지 논란의 해법, 기념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정 선생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간 항일운동에 투신했으며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1939년)’ 등을 작곡하면서 혁명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팔로군 행진곡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北京) 텐안문(天安門)광장에서 열린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에서 연주됐다.

유영기기자 penfoot@

광주시, 오늘 ‘시민아고라 정책 공유대회’ 개최

12개 정책과제 시민과 추진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추진할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공유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토론 형식의 ‘시민아고라 2015 정책 공유대회’를 연다.

행사에서는 6개분과 12건 정책과제에 대해 현안으로 도입 필요성·시급성·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한 뒤 ‘지지 스티커’를 부착, 도입 희망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공유 대상 정책과제는 ▲환경 및 도시재생 분과의 광주습지보전·거버넌스

관리체계 마련,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분과의 사회적 경제·관계기관 집적화 추진, 사회적 경제활동 생산품 우선구매 공시제 ▲여성 및 청소년분과의 여성 장애인 산부인과 지정, 과밀학급 팀 티칭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이다.

또 ▲문화·예술·관광 분과의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 편성 건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추진 ▲복지와 인권분과의 마을단위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회복지현장 공공성 강화위원회 구성·운영 ▲자치가 있는 마을공동체 분과의 시 산하 공무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마을 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 등도 포함됐다.

최권익기자 cki@

남북 당국간 회담·적십자 본회담 추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8·25 남북 합의’에 따라 조만간 남북 당국간 회담과 적십자 본회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의 질의에 “남북 합의에 따라,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당국 간 회담이 이뤄지고, 적십자 본회담 등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산가족 상봉도) 보다 정례화하고, 생존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남북 간 합의가 되면 보다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난 8월, 남북은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 회담을 정례화·체계화하고 이른 시일 내 서울 또는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데 공감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광주·전남 “문화로 어울리자”

내달 1일까지 국제농업박람회장 등서 합동 공연

광주시와 전남도가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제농업박람회장 등지에서 문화예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3일 나주시 산포면 국제농업박람회장 주무대에서 윤정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가 ‘제1회 광주·전남 문화주간 선포식’을 하고 합동공연을 펼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주도, 양 지역 문화단체들이 참여해 국제농업박람회장 주무대 등지에서 진행된다. 광주 공연단체 등은 국제농업박람회장 주무대에서 오는 11월1일까지 매일 공연을 펼친다. 전남지역 문화단

체들은 광주문화재단과 무등산권문화협의회 6개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2015 무등울림’ 축제에 참가한다.

한편, 이날 23일 열린 광주·전남문화주간 선포식에는 두 단체장과 함께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원로 문화예술인 문순태 소설가와 김희웅 전남문화원연합회장이 참여해 ‘광주전남 문화상생 약속 퍼포먼스’를 펼쳤다. 합동공연에는 도립국악단의 ‘남도아리랑’과 광주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합창단의 ‘빛의 오케스트라, 남도예술’ 공연이 진행됐다. ‘신명타고’ 공연에서는 도립국악단의 소고춤과 사물놀이팀의 웅장한 소리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유영기기자 penfoot@

중외공원 피폭 감나무 2세 공개된다

광주에서 자라는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폭 감나무 2세가 시민에 공개된다.

25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간의 소생 감나무 프로젝트, 광주에서의 역사와 의미’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미술관 측이 비공개로 관리해온 감나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시

와 협의를 거쳐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감나무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감나무 2세로, 지난 2000년 4월 하정웅 명예관장이 광주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중외공원에 처음으로 식수했다.

김영희기자 kimyh@

광주세계김치축제 담양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대박
예감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인 광주세계김치축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2015국제농업박람회가 ‘대박’을 예감하고 있다.

25일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개막 37일째인 지난 23일 90만번째 관람객이 입장했다. 조직위는 폐막일인 오는 31일까지 관람객 100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5국제농업박람회 역시 개막 9일째인 23일 관람객 35만명을 돌파했다.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에도 이를 동안 3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 소아/안 라식/안 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